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⑤

〈승만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전이다. 그 핵심은 여래장이다.

◇법신장(法身章) 여래장(如來藏)이 충분히 개발된 것이 곧 부처님이고, 번뇌장(煩惱障)에 얽힌 여래장이 곧 법신(法身)이라고 이 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공의은복진실장(空慧隱覆眞實章) 이 장에서는 여래의 지혜를 밝히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룩한 본성을 충분히 개발하여 참으로 의의(意義)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려는 대자비심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제(祇諦)·도제(道諦)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멀지 않아 돌아오는 것이다. 멀(遠)이란 모든 차별을 완전히 없앤 평등의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지할 최고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의(一)라고 하는 것이다.

◇전도진실장(顛倒眞實章) 우리의 잘못된 견해와 진실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전도(顛倒)란 범부의 소견이고 진실(眞實)이란 불·보살의 소견인데, 이것의 다른 점은 여래장(如來藏)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는 것이다.

◇자성정정장(自性淨淨章) 이 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래장(如來藏)에 대해서 피력하는데, 자성정정(自性淨淨)이란 곧 여래장(如來藏)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성품이 정정하다. 그러

청정한 자성이 곧 여래장

범부도 여래장 개발하면 부처 이룬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속의 생활을 떠나 수행하는 것을 불법의 본(本)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한 가르침이 행해지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는 것이다.

◇일제장(一諦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그 수가 한량이 없이 많다. 요컨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견(正見)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견이란 부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모든 범부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고, 지금은 범부지만 수행을 쌓아나 가면 나중에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정견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의 설법의 귀착점(歸着點)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일제(一諦)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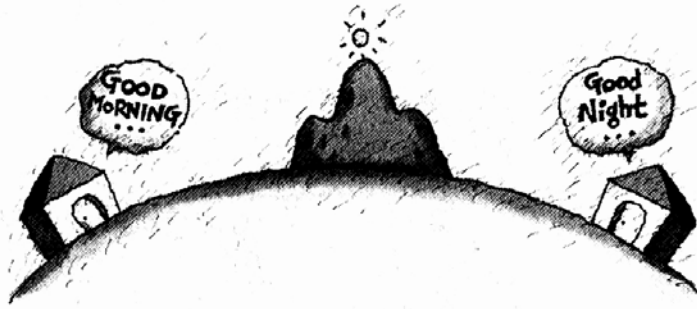
◇일의장(一依章) 여기에서는 사성제(四聖諦)를 설하고 있는데 사성제 중에서도 멀(遠)의 일제(一諦)만이 항상하는 것이고, 귀의의 대상이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성제란 고제(苦諦)·집제(集諦)·멸

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청정한 자성을 남김 없이 발전시키는 사람은 곧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여래진자장(如來眞子章) 스스로 밝힌 지혜의 등불에 의지하여 믿는 자가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승만부인은 다시 세 가지 선남자 선여인을 들어,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고, 다시 사법(沙法)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 사된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청정하시어 "그 마땅함을 얻었다"고 하셨다. 이상이 정종분(正宗分)이다.

유통분(流通分)에 들어가는 먼저 승만부인이 부처님을 하직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남편 우청왕(友稱王)과 함께 대승의 가르침을 퍼가게 힘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지는해 반대쪽서 보면 솟는해

불교와 과학 <15>

밀가루 반죽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반죽놀이 하곤 한다. 아이들 엄마는 일하는 데 방해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예 놀이용 반죽을 떼어 주고 만다. 우선 반죽을 잘 하려면 체대기를 잘 해야 하는데, 손으로 대충 반죽 덩어리를 누른 다음에 그 반죽 덩어리를 다시 중간중간에서 한 번 걸치게 주름지게 휘 집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밀기듯 하지만 대개는 두세 번을 계속 집어 두들겨진 것을 또 얇게 눌러 펼치다가 또 다시 휘어서(주름잡아) 집어 버린다.

깨반죽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반죽 덩어리에 깨를 넣어 다시 계속 집고 밀어서 펼치고 다시 꺾고(주름잡고) 집는 일을 반복하면 나중에 깨가 온 반죽에 어떤 때는 골고루, 어떤 때는 뒤죽박죽 퍼져 있게 된다. 접혀 꺾여지는(주름지는) 부분도 일정치 않아서 깨가 어디로 분산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처음 깨를 쏟았을 때 반죽 밀기를 한 쪽 방향으로 펼치기만 한다면 깨의 분포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반죽을 소위 단순한 반죽 밀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꺾는 작업을 하는 순간에 이 반죽은 깨의 분포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반죽이 되어 버린다. 복잡한 반죽은 아무리 반죽의 과정을 거꾸로 해도 원래 상태의 깨 분포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다. 이런 상태의 반죽이 바로 복잡화된(complicated) 반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잡성(complex)의 어원도 원래는 'con plicare'로서 '서로 겹쳐 집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반죽된 밀가루는 우리 자연의 모습을 은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연은 원이나 삼각형과 사각형처럼

일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것보다 기하학의 틀 안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다양성의 모습을 천지이다. 우리의 자연은 접혀지고 다시 접혀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접혀진 자연의 속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다시 펼치려고 한다면 원래의 자연의 모습은 간데 없고 틀 속에 가두어진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게 되고 만다. 그나마 펼칠 수 있는 자연의 부분들은 자연의 가장자리일 뿐

과학 곁에 드러난 자연 8~10%만 파악

불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고리 복잡

이다. 자연의 그러한 가장자리를 보고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과학법칙이라고 말한다.

자연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과학법칙은 자연계의 8~10% 정도만을 기호화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떤 카오스 이론가는 1%도 안 된다고 한다. 인간이 그 주름을 편다 해도 맨 끝 부분만을 겨우 펼 수가 있어서, 그 끝 부분을 갖고서 인간의 기호를 붙이고 인간의 의미를 갖다낼 뿐이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자연의 저 안 쪽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이 접혀지면서 자연의 운동원리 자체가 구겨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 접혀지면서 자연의 인과율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연의 인과율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접혀 온 자연의 끝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괴론(catastrophe theory)이라는 과학이론이 있다. 인과의 끈에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 그 과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마지막 현상만을 보고서, 처음과 끝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두고 파국현상이라고 말한다. 자연이 접혀지면서 자연의 현상은 인간의 일방적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접혀짐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인 자연의 인과현상을 마치 급격하게 혹은 불연속적으로 혹은 우연적인 비인과율로 보게 된다.

해가 저무는 황혼의 저녁은 여기서 볼 때 황혼이지만 서쪽으로 가면 아직 타오르는 붉은 태양이 있는 한낮이다. 황혼을 보고 조금 후에는 어두운 밤으

로 잠입되어 저녁을 끝이라고 하지만 더 먼 저기 서쪽에서는 처음일 수 있다. 저녁은 연속적인 해의 운동과정이지만 여기서 볼 때 저녁은 급변되어진 끝이라고 볼뿐이다. 그러나 저기 서쪽에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파국은 아니다. 그래서 저녁과 한낮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한낮과 저녁은 주름잡혀 접혀진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모르는 태양 운동의 두 가지 면일 뿐이다.

굳이 불교의 연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곁에 드러난 현상에 매이지 않고, 접힘의 안 쪽을 잘 모르더라도, 그 속의 깊이가 있다는 정도만이라도 인정하는, 그런 인연의 상상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희중/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한국 참선 인기 높은 대·소승불교 공존사찰

지구촌 불교 / 美 명상원

티베트, 일본,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한국불교 등 다양한 전통 속에서 공부한 스님과 법사들이 활동하는 미국, 이 곳에서 남방과 북방의 불교가 공존하는 사찰이 미국인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사찰은 지난 91년 스리랑카 다르마 랑카라 스님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선랜드(Sunland) 지역에 세워진 '불교 명상원(Buddhist Meditation Center)'이다. 명상원이 개원했을 당시에는 상좌부 불교만이 있었는데, 이곳에 한국 불교와 인연 있는 스리랑카 스님인 해월 스님이 오면서 한국 불교의 전통 역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명상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다르마 랑카라 스님은 아시아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이 곳의 운영은 자연스럽게 해월 스님을 비롯해 3명의 남방불교계 스님들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명상원의 대종파와 법당의 모습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법당에는 개인 당시 봉안했던 상좌부 계통의 불상이 있지만, 불단의 모습이나 그 뒤편에 걸린 불화의 모습은 한국 사찰의 법당을 떠올릴 만큼 변모했다.



미국 LA 선랜드 지역에 개원된 '불교 명상원'에서 참선하는 미국인 불자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많이 찾아 위빠사나·참선·서예·다도교실 개설

또한 명상원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위빠사나'와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참선', '붓글씨', '다도' 등을 선보여, 이 곳을 찾는 미국인 불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양한 종파의 불교가 들어와 있는 미국이지만, 남방과 북방불교의 수행과 교리가 공존하는 명상원의 모습은 한번쯤 찾고 싶은 '이색 사찰'이 된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 명상원의 법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수는 평균 30~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중 해월 스님의 참선실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은 선랜드 지역 TV인 '25CH'에서 명상원을 생활과 수행을 방송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25CH는 방송에서 부처님 시대의 수행법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한편 선(禪)과 같은 북방불교의 수행에도 관심을 보이는 스님과 불자들을 끌어다, 선랜드 지역의 불심을 자극했다.

명상원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밀러(Miller) 씨는 "이 곳의 분위기는 우리들에게 아시아 불교 나아가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선랜드 지역에서 불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83년 송광사 국제선원을 찾으며, 한국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해월 스님은 현재 '불교 명상원'에서 한국의 전통 승복을 입은 채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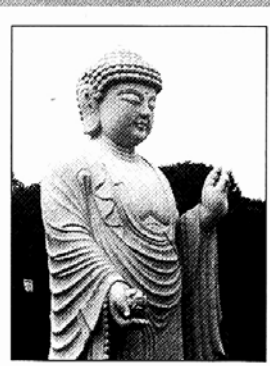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변이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초본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호(동국대학교수) · 모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장휘욱(동국대학교수) · 권만관(동국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계환스님(동국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학교수) · 김성철(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당론	· 권기홍(동국대학교수) · 최홍석(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전문위원) · 홍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한정성(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기(동국대학교수) · 유진스님(동국대학교수)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오국근(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서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 일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70 서울 중로구 건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급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